

##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

로마서 16:25-27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전지전능하시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천명까지 다시 회복시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2022년도에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미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후대와 교단의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가 원스되어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제목을 붙잡고 여러 가지 해결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응답과 해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주권을 체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에 기도제목을 적는 노트가 있었다. 5년 후, 10년 후, 평생의 기도제목을 적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제목 잘 적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1천만 제자를 적는다. 앞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 된다. 여러분도 당연히 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된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하고 응답받아야 한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걸어가야 할 그 길, 내년에 걸어가야 할 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잘 적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돌이켜 보라. 작년 한 해도 응답을 받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해에 램프 한 명이 박사학위 논문을 가져왔다. 내 꿈은 모든 램프들이 석사, 박사 하는 것이다. 개인화하는 것이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해야 한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큰 그릇을 만드시는 인턴십의 과정으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하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 분야의 RUTC를 램프가 이루어갈 것이다. 그것을 조직화시키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도 다른 것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단의 담임목사를 사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성취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인턴십이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바로 핵심을 붙잡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와 나의 현장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구나.’ 붙잡고 주제를 붙잡을 줄 안다면 어디를 가든지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적고, 줄을 그으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22년에는 완전복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면 된다. 과거에는 당연히 했는데 요즘은 당연하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약간만 빛을 비추면 현장의 흑암이 꺾이게 된다. 여러분이 2022년에는 한 번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먼저 2021년 일 년 동안 다사다난한 상황 속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사랑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주시고 봉사해주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

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께 다시 한 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생, 광야, 포로, 로마, 응답도 주셨다가 빼앗아 가신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진도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아무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237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으로 결론난 성도, 완전복음으로 결론한 소수,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나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특히, 우리 교회를 오직 237, 치유, 서명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 받도록 편집, 설계, 디자인해 주실 줄 믿는다.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이다. 복음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짐으로 영원히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그런데 기존 성도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줄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확신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 십자가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화될 내용들이 많다. 십자가는 용서, 사랑, 은혜이다. 눈물, 땀, 피다. 순종이며, 겸손, 복종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복음의 의미를 모른다. 결국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겠는가. 내 안의 속사함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로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 바란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복음으로 결론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완전복음의 복음적인 체질로 거듭나도록 도전해야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하겠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오직복음과 완전복음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첫 번째는 오직복음이다.** 이전에 오직복음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오직 예수에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앞에 더 중요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오직 예수,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게 예수님과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복음, 오직예수, 전도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새로워지고, 어느 날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을 것이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오직복음에 대하여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겨우 구원은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전도자로는 쓰임받기 어렵다.

오직복음, 오직예수가 된 성도들만이 이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직복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직복음의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이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근본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오직복음, 오직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오직복음, 오직예수에 대한 요절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담대히 증거한 말씀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오직복음이었던 사람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오직복음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참여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윤리적인 문제, 다름, 분열 등이 있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의 대열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성격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오늘 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을 알고 더러는 오직복음까지 이르렀지만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며 과제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과 오직복음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복음의 체질이 되도록 도전해야 하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완전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성경에 보면 복음과 오직복음에 대한 요절보다 완전복음에 대한 요절들이 더 많이 있다.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끊임없이 완전복음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중독에 빠지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완전복음의 사람이란 술을 끊거나 중독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1) 성경에 보면 완전복음에 해당되는 요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들을 좋은 요절로 치부하고 스스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완전복음에 해당되는 요절들을 함께 읽어보겠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음은 마태복음 5장 44절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이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솥불을 그 머리에 쐬어 놓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이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으로 결론, 그리스도가 주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다. 내가 복음화되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

(2) 또 성경에는 완전복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흠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다. 또 다른 인물은 어린 램넌트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그들은 뜻을 정하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았고, 풀무불에 던져 질지라도 우상상배를 거절하였으며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정시기도, 서밋타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인물들도 모두 완전복음으로 체질화된 절대제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 어려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램넌트들의 보호자, 동역자, 수고한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식주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가 없더라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성경에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 시대 시대마다 만들어진 복음과 예배시스템이 있었다. 광야에서는 율법과 성막과 제사제도를 영원한 예배시스템으로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왕국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을 복음과 예배시스템으로 주셨다. 바벨론 포로시대부터 로마식민지시대까지는 회당을 영원한 시스템으로 주셨다. 초대교회 이후에는 교회를 영원한 시스템으로 주셨다. 그렇다면 21세기 오늘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복음시스템은 무엇일까?

(1) 성경적 전도운동의 핵심인 5가지 시스템이다. 그것은 다락방, 탐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이다.

(2) RUTC이다. RUTC란 후대들을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세상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꾸는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3) 237 시스템이다. 237이란, 복음적인 전도운동과 RUTC 운동을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선교시스템과 NGO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교회는 사단법인 서로사랑을 통해 그 기초를 준비하고 있다.

(4) 치유시스템이다. 자살예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독예방과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부치유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신문제와 정신병치유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사명자들이 나와야겠다.

(5) 서밋시스템이다. 우리 후대들을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램넌트의 재능과 달란트를 찾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화시켜야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턴쉽을 해 주어야 하겠다.

(6) 4차 산업시대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공학, 로봇, 가상현실, 미디어영상, 친환경시스템을 주도할 주역으로 우리 후대를 준비시켜야 하겠다.

(7) 예체능현장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겠다. 손흥민과 같은 인물, BTS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김연아와 같은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미래문화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란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에 참사랑교회와 참사랑성도들이 도전해야 할 도전미션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2022년도에도 이 미션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24기도하면서, 24시간 기획하고,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도전해야 하겠다.

1. 먼저 300 영접, 30 다락방, 3 지교회를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란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2. 교역자들과 전도자들은 70 현장에서 1대1 개인지교회에 도전하시기 바란다. 강단말씀의 포럼이 되는 분들이 개인지교회이다.

3. 5인 1조 지교회를 셋팅하기를 바란다. 강단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분들이 5인 1조 포럼팀을 구성해야 한다. 5인 1조라고 해서 꼭 5명이 아니고 두세 명에서 대여섯 명까지 가능하다. 숫자가 많아지면 다시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확장이다.

4. 참사랑 RUTC 시스템을 영원한 전도시스템으로 그리고 문화를 바꿀 시스템으로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영원한 시스템인 참사랑 RUTC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란다.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직원으로 섬길 수도 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후원이다.

5.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찾아보시기 바란다.

6. 인생캠프와 전도캠프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전도캠프의 인생이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전도대상자가 있어야 하고 다락방을 통하여 양육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 교회화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을 정해서 시작하시기 바란다.

7. 2022년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발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다면 놀랍게도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말씀을 발견할 것이다. 그 말씀을 5인 1조 지교회에서 포럼해 보시기 바란다. 이때부터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2022년도에도 복음을 깊이 묵상하다가 오직복음으로 결론내고 완전복음을 향해 도전하면서 우리 교단과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만드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21년 마지막 날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램넌트들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시대를 흑암의 문화 속에서 견져낸 그 현장, 학교, 직장, 산업, 문화현장을 살릴 유일한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한 사람 소수였지만 그 시대를 바꾸었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두 다 현장에서 쓰임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